



2022. 6. 13 (월)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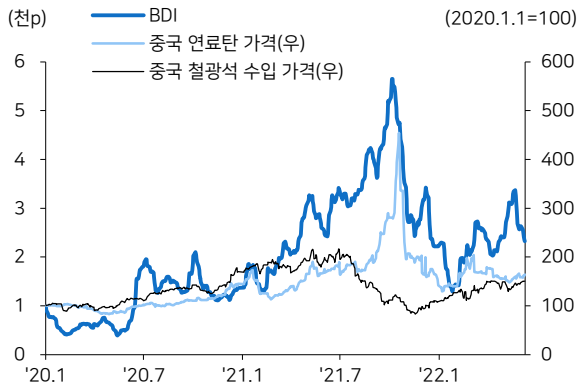
02. 6454-4873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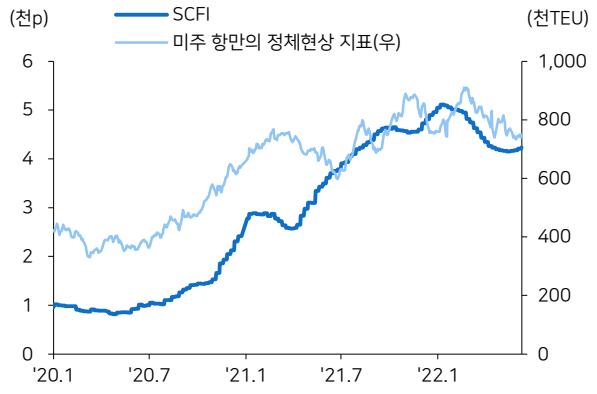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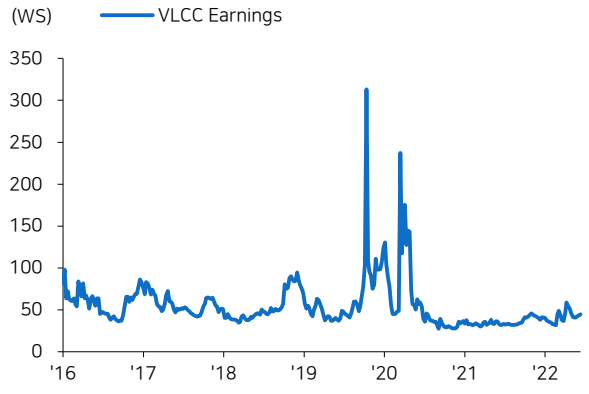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320.0p(-2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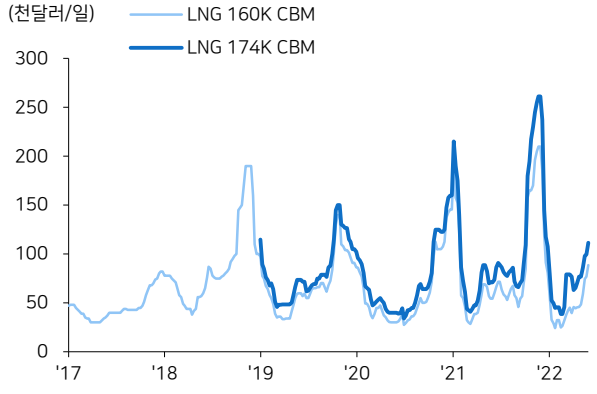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233.3(+25.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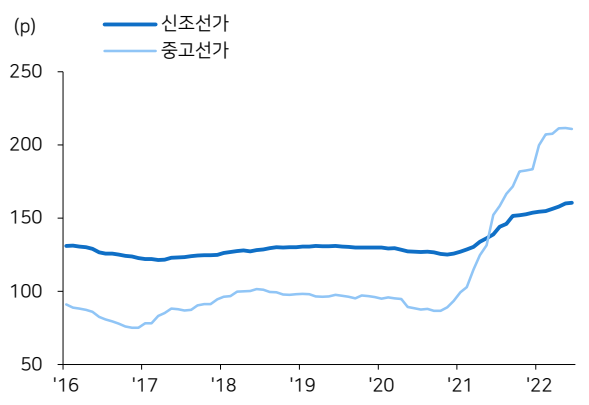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4.8p(+1.2p WoW)



LNG Spot 운임 97.5p(+9.0p WoW)  
120.0p(+8.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0.4p(+0.3p WoW)  
210.9p(-0.7p WoW)



항공시장 지표 249.5p(-6.5p DoD)  
91.6p(-2.9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여름 휴가 앞두고 두 배 뽐 항공권... 공급 부족과 항공유 80% 급등 탓

'보복 여행'수요가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전세계적으로 폭발할 조짐을 보이면서 비행기 티켓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보도됨. 캐세이 퍼시픽항공의 6월말 홍콩~런던 왕복 이코노미석 가격은 5,360달러로 팬데믹 이전 대비 5배 이상 급등했다고 알려짐. 미국 CPI가 8.3%를 기록한 지난 4월 항공료는 18.6% 상승함. 전세계 항공권 가격 상승에는 공급부족과 국제유가 급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됨. 항공사들이 초대형 비행기보다는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를 우선 투입하며 좌석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도됨. (에어진)

### 'Viscerally angry': Biden takes swipe at container lines in battle against inflation

지난 금요일(10일), 바이든대통령이 인플레이 대응에 있어 외국 컨테이너선사의 수수료 단속을 언급했다고 보도됨. 6월내로 해운비를 줄일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명함. 선사들이 팬데믹 기간 운임을 1,000% 인상하고, 2021년 7배 이상의 수익을 본 점을 비판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 Posidonia, bunker costs and demand slump fuel 19% weekly drop in bulker rates

벙커비용 상승, 수요 둔화 및 선주들의 Posidonia 박람회 참여로 벌크운임이 꾸준히 하향세를 보였다고 보도됨. Capesize 5TC운임은 6월 1일 대비 금요일(10일) 19% 하락함. 애널리스트들은 박람회가 끝나면 선주들이 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됨.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봉쇄로 철광석 수요가 감소했고, 인도는 우기를 대비하며 석탄수입을 보류한 상황으로 알려짐. (Tradewinds)

### Mediterranean to become an emission control area from 2024

지중해가 2024년부터 ECA(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됐다고 보도됨. 아시아와 유럽을 해로로 연결하는 수에즈운하를 통과할 경우 지중해를 항행하게 됨. 현재 ECA로 지정된 곳은 유럽 북해, 발트해 및 북미연안, 카리브해 4개 해역임. (Tradewinds)

### 일본, 원가 상승 압박 너무 심해

후판 가격 등 원가 상승 압력을 견디지 못한 일본 조선업체들이 선가를 대폭 올릴 계획으로 보도됨. 일본 주력 선종인 벌크선의 경우 64,000DWT 울트라막스선과 35,000DWT 핸디사이즈선은 각각 4,000만달러, 3,500만달러로 상승할 예정으로 알려짐. 전통적으로 일본이 중국보다 선가가 높지만 최근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 Japan to continue importing "essential energy sources" from Russia

일본은 지난 7일 발표된 연간 정부 리포트에서 사칼린1 원유 및 가스, 사칼린2 LNG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할 것으로 발표했다고 보도됨. 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러시아만 배불리고 일본의 에너지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함. 2021년 기준 일본의 러시아산 LNG 의존도는 9%, 미국산 의존도는 10% 었음. 6월 초 일본과 Alaska 주지사의 회담이 있었는데, 일본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Alaska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미국산 LNG 확보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됨. (Upstream)